

호세아 7:1-7:2

1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2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눈 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 1 절과 2 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사는 대신 속이고 도둑질하고 약탈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그런 죄들에 대하여 크게 마음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대놓고 약탈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백성들이 개의치 않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악이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7:3-7:7 왕궁안의 반란

3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4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 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5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곱아 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6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 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7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 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 3 절부터 7 절의 말씀은 열왕기하 15 장의 내용을 참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15 장에 6 명의 왕이 15 장에 등장하는데 이들은 스가랴 (6 개월), 살룸 (한달), 므나헴 (10 년), 브가히야 (2 년), 베가 (20 년), 호세아 (9 년) 이고 괄호는 각 왕이 재위한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들 중에서 므나헴을 제외한 스가랴, 살룸, 브가히야, 베가왕이 반란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호세아 9 년에 앗시리아에게 점령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7 장에 나옵니다.
- 왕을 보좌해야 할 사람들이 충실하게 돕는 대신, 정치적인 목적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가 (4 절) 뭔가 잔치가 벌어지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5-7 절). 화덕은 식지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욕망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7 절).

호세아 7:8-7:16 이스라엘과 열강들

8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9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10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11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짓대 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 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앗시리아에게 달려간다. 12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13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 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14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15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16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 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 8 절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하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뒤집지 않아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하나님께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9 절-11 절의 내용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 (시리아, 앗시리아, 이집트) 사이에서 동맹을 맺고 조공도 바치는 상황과 (열왕기하 15 장) 나중에는 앗시리아, 이집트와 비밀리에 이중으로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의 행태를 상기시킵니다. (열왕기하 17 장 4 절).
- 12 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짓대없이, 주변국 눈치만 보면서 진실됨이 없는 이스라엘을 비둘기에 비유하면서, 새를 잡듯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14 절에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 빈다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예언자들의 대결이 담긴 열왕기상 18 장을 보면 바알 예언자들이 피가 흐르도록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상 18:28) 하나님께 비는 과정에 우상에게 하는 방식을 빌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혼탁한 제사와 예배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15 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살피시고 여러 고난과 사건들을 통하여 단련을 시키시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16 절에서 이집트는 실제 이집트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주변 세력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